

광주·전남 부동산 실거래 신고 위반 1264명 적발

광주시 195명·6억8천만원 과태료...광산구 44건·서구 26건 順 전남도 513건 1069명 적발...세금 덜 내려고 다운계약도 많아

양도소득세를 줄이기 위해 실거래가보다 낮거나 높게 신고하는 매도·매수자들, '다운계약' 등을 대행하고도 모른 척한 중개업자 등 실거래 신고를 위반한 광주·전남지역 1200여명이 적발됐다.

◇광주·전남 1264명, 실거래가 신고 위반=18일 국토해양부가 발표한 '2018년 부동산 거래신고 위반 현황'에 따르면 광주시는 지난 한 해 동안 부동산 실거래 신고 위반행위로 127건을 적발, 195명에게 6억 8011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전남도도 같은 기간 513건을 적발했다. 전남도가 1069명에게 부과한 과태료는 8억 8250만원이다.

광주의 경우 광산구가 44건(67명·2억 8300만원)을 적발해 가장 많았고 ▲서구

(26건·46명·과태료 2억 6900만원) ▲북구(24건·30명·7500만원) ▲남구(18건·31명·4000만원) ▲동구(15건·18명·1100만원) 등의 순이었다. 남구의 경우 지난해 아파트 가격이 급등하면서 자진거래·다운계약서 작성 등의 의혹이 끊이지 않았던 지역이기도 하다.

전남에서는 여수가 8건(24명·1억 5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유형별로는 '신고 지연 및 미신고'가 가장 많았다. 광주에서는 141명(95건)이 실거래 신고를 하지 않거나 늦춰다가 7800만원의 과태료를 내게 됐다. 전남에서도 949명(451건)이 3억 35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됐다.

광주지역 A 공인중개사는 현행법상 주

택 거래 신고 기한이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인데도, '2달'로 인식하면서 61일째 신고했다가 과태료를 물게 됐다.

◇세금 덜 내려고...양도소득세 등을 줄이기 위해 실제 거래가격보다 낮게 신고한 '다운계약'도 적지 않았다. 광주에서는 13건(28명·3억 6600만원), 전남은 32건(66명·2억 7400만원)이 적발됐다.

광주 광산구는 B 읍직점 매매 과정에서 20억원에 거래하고도 14억 5000만원으로 가격을 낮춰 쓰는 '다운계약서'가 작성된 사실을 적발해 매도·매수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했다. 광산구는 또 매매 과정에 개입, 대행하고도 관련 사실을 묵인한 혐의로 해당 중개업자의 등록을 취소했다. 광산구에서만 '다운계약서' 작성 혐의로 11명이 적발, 2억 3600만원 상당의 과태료를 물게 됐다.

서구도 27억 3000만원짜리 건물을 매매하면서 17억원으로 낮춰 '다운계약'을 한 매도·매수자에게 2억 1800만원의 과태료

를 부과했다. 북구는 아파트 부지 일부를 사들이는 과정에서 실제 거래액보다 3억원 가량 낮춰 구입했다고 신고한 주택조합을 적발하기도 했다.

남구는 2015년 아파트 분양권을 3억 8000여만원에 매입하면서 3억 5700만원으로 계약서를 썼다고 3년 만에 '고백'한 매수자의 '자진신고'를 바탕으로 매도자에게 관련 과태료를 부과했다.

동구에서는 매도자가 양도소득세를 줄이기 위해 실거래가보다 3000만원 가량 낮게 신고하는 '다운 계약'을 썼다가 위반 사실을 자진 신고, '리니언시' 제도에 따라 과태료를 감면받기도 했다. 리니언시 제도는 정부가 부동산 실거래가 허위 신고를 자진신고하면 과태료를 감면해주는 제도다.

한편, 국토부는 같은 기간 실거래신고 위반행위 9596건을 적발, 1만 7289명에게 350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코스피 2179.49 (+3.38)	↑ 금리(국고채 3년) 1.81 (+0.01)
↑ 코스닥 753.13 (+4.77)	↓ 환율(USD) 1132.10 (-5.20)

기아차 노사 '통상임금 9년 분쟁' 마침표

조합원 53% 찬성 합의 평균 1900만원 지급

기아차 노사의 통상임금 9년 논쟁이 종지부를 찍었다.

18일 기아차에 따르면 노사는 이날 경기 광명시 소하리공장 등에서 '상여금 통상임금 적용 및 임금제도개선 관련 특별합의' 조인식을 열고 합의안에 최종 서명했다.

노사는 지난 11일 통상임금 특별위원회에서 잠정 합의한 상여금의 통상임금 적용과 미지급금 지급 방안을 14일 조합원 투표를 거쳐 찬성 53.1%로 최종 가결했다.

앞서 특별위원회는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적용해 평균 월 3만 1000원을 인상하고, 미지급금을 평균 1900여만원 지급키로 합의했다.

미지급금 가운데 1차 소송 기간의 지급 금액은 개인별 2심 판결금액의 60%로 올해 10월 말까지 지급하기로 했다. 또 2·3차 소송 기간과 소송 미제기 기간인 2011년 11월부터 2019년 3월까지의 최대 800만원(근속연수별 차등)을 이달 말까지 지급한다.

상여금도 750% 전체를 통상임금으로 적용하며 상여금을 포함해 시급을 산정하기로 했다. 이로써 통상임금 논란은 법정 공판 대신 노사 간 대화를 통한 자율적 합의로 마무리됐다.

기아차 노조는 대표소송으로 진행된 2차 소송은 합의에 따라 합의금 전액이 지급된 이후 취하할 예정이다.

다만, 1차 소송과 3차 소송은 개별 소송이기 때문에 조합원 선택에 따라 소송을 유지할 수 있으며 소송을 유지하는 조합원에게는 미지급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코리아디자인 멤버십 모집

광주디자인센터, 내달 5일까지

광주디자인센터가 역량있는 디자인 인재를 선발한다.

디자인센터는 오는 4월 5일까지 '2019년 코리아디자인멤버십' 회원을 모집한다.

코리아디자인멤버십 프로그램은 서남권 지역의 역량 있는 디자인 인재를 선발, 현장실무형 디자이너로 양성하기 위한 것으로, 광주·전남, 북, 제주지역 대학생을 대상으로 13명을 선발한다.

서남권 소재 대학 디자인학과 및 관련학과 대학생 및 대학원생이면 신청할 수 있다.

선발되면 광주디자인센터 내 개인별 창작 공간과 장비, 기자재 등을 제공받고 국내 및 해외 기업과 산·학 협력 디자인 연구 개발 프로젝트, 디자인 상품 개발, 글로벌 기업과 연계한 해외 워크숍 등에 참여할 기회도 얻을 수 있다.

광주디자인센터 관계자는 "역량있는 회원들을 선발,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



"향 좋은 '캠프 나무 도마' 구경오세요"

주광주신세계 지하 1층 매장을 방문한 고객이 캠프 나무로 만든 도마를 살펴보고 있다. 캠프 나무는 은은한 향이 향균작용을 해 보존성이 높은 고급 수종

<광주신세계 제공>

광융합산업 발전·경쟁력 강화 나선다

전문가 200명 참석 포럼

광·융합산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 발전시키기 위한 논의의 장이 마련된다.

한국광산업진흥회는 오는 27일 서울에서 전국 광·융합 분야 전문가 200여명이 참여할 예정이다.

이날 포럼은 '광융합기술 종합발전계획'에 따라 광융합산업의 연구·개발 역량을 강화하고 전문인력을 양성하는데 필요한 정책 방안 등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로, 전국 광·융합 분야 전문가 200여명이 참여할 예정이다.

광산업진흥회는 포럼을 통해 광융합 분

야 최신 기술 동향을 소개하는 한편, 전국 광·융합 산업 현황과 정부의 종합발전계획을 공유해 글로벌 경쟁력 강화 방안을 모색한다는 구상이다. 포럼은 한국광기술원과 전자통신연구원, 한국광산업진흥회 전문가 등이 나서 마이크로 LED, 광 ICT 융합기술, 광융합산업 분야 최신 기술·동향을 소개하는 세미나와 광융합산업 R&D 전략, 인프라 고도화, 인력양성방안 등을 논의하는 토론 등으로 나누어 진행된다.

정부가 올해부터 광·융합업체들의 글로벌 역량과 위상을 높이기 위한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는 데 맞춰 광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포럼을 마련했다는 게 광산업진흥회 설명이다.

한국광산업진흥회 관계자는 "광융합기술자원을" 시행에 따라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되는 광융합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컨트론타워 역할을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광주중기청,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입학식

이론·실습 등 4주간 진행

광주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은 18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광주호남지역본부에서 신사업창업사관학교 9기 입학식을 개최했다.

이날 입학식에서는 서류심사와 면접을 거쳐 최종 선발된 예비창업자 25명이 성공 창업을 다짐했다.

예비창업자 중에는 콘트라베이스를 전공하고 바리스타 경력을 쌓은 예술문화복합공간 예비창업자 강세웅(26)씨, 한식조리사와 향토음식지도사 자격을 보유한 최고령 입교생 정인희(58)씨 등이 눈길을 끌었다.

창업사관학교는 3년 내 폐업률이

62%까지 급증한 소상공인의 사업정착을 돕는 전문 교육과정으로, 이론교육과 점포체험 실습 등 5개월간 운영한다.

창업 분야 교수, 컨설턴트, 선배창업자 등이 강사로 참여하는 이론교육은 온·오프라인으로 4주간 진행된다.

이론교육을 마치고 16주 동안 체험점포에 입점해 판매전략, 고객관리 등 경영 실무를 쌓는다.

졸업생에게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최대 1억원까지 창업자금을 대출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한다.

사업화 지원 신청자에 한해 교육 결과와 사업계획 평가를 거쳐 최대 2000만원의 사업화 자금도 지원한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중기부 '메이커 문화' 확산사업에 44억 투입

중소벤처기업부는 '메이커 문화' 확산 사업 추진계획을 공고하고 다음 달 18일까지 지원 대상자를 모집할 예정이다.

메이커 문화 확산사업은 메이커 운동(오픈소스 제조업 운동)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직접 구현하는 다양한 메이커 활동을 발굴해 지원하는 내용이다.

중기부는 올해 메이커 창작활동을 비

롯해 메이커 동아리, 복합 프로젝트, 해외 메이커 페어 참가, 찾아가는 메이커 교육 등 6개 분야 349개 과제(기관)를 선정해 모두 44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창의성을 바탕으로 혁신 제품을 만들고 사업계획 평가를 거쳐 최대 1500만원을 지원한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아직도 묘지를 선호하십니까?

사람은 자연에서 태어나서 자연으로 돌아갑니다

방치된 묘지 70%(추정)

우리 금수강산이 묘지강산으로 변할 수도 있습니다

잊혀지지 마세요
 잊지마세요
 자연에서 기억하세요
 사랑은 원래 자연입니다

수목장(묘정리·이장·안치)

● 자연장의 장점 ●

- 매장이나 봉안에 비해 비용이 매우 저렴합니다.
- 국토를 효율적 활용 자연을 보존할 수 있습니다.
- 관리가 편하며 반영구적입니다.
- 생활공간과 가깝습니다.

본 자연장은 아름기도회에서 운영하는 회원들을 위한 종교시설입니다.

아름수목장 자연장·수목장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중앙로 114 랜덤피아 1011호

☎ (062) 372-7878

자연장

자연과 인간이 함께하는 새로운 장례문화입니다

화장한 후 잔디나 화초, 나무 밑에 유골을 묻어 고인을 자연으로 되돌아가게 하는 아름다운 장례문화입니다.

